

제 안 설 명

(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)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조상호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「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,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.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, 이는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, 중위권 붕괴 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.
- 학교 정상화는 한시 바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전면 등교교육이 가능하려면 ‘학급당 학생 수 감축’이 필요합니다.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생중심, 참여교육을 가능케 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혁신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.
-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는 물론이고, 국민청원에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 지난 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명시한 「교육기본법」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나 대안 반영과정에서 ‘적정 학생 수’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개

정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.

-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법제화 되어야 지금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 나아가 미래 혁신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본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령에 명시할 것과 실천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.
-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,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는 꼭 필요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3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